

꽃이 없는 이야기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고—

김 히 선

원수님 오신 날

원수님 만나뵈은 학장엄마 우리 엄마
세상제일 기쁜 날을 꿈만 같이 맞았대요

박사인 엄마도 미처 모르는 문제들도
원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대요

교원대학 세워주신 고마운 그 사랑에
인사말도 못 올리고 눈물 알각 쏟았대요

자기 땅에 밭붙이고 세계 향해 훨훨 날을
넓고넓은 만리창공 한껏 펼쳐주셨대요

꽃봉오리 친한 동무

보기도 처음 보고
듣기도 처음 듣는
모래다기능칠판아
너는야 엄마대학 자랑이라지

모래 살짝 쌓으면 큰 산이 되고
솔솔 파면 강이 되어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
조선지도 펼쳐지지

반짝반짝 은모래우에
울긋불긋 고운 꽃들
손에손에 담아들면
충정동이 마음어린
크고큰 꽃바구니 되고요

원수님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이름도 지어주신
모래다기능칠판아
너는야 꽃봉오리 친한 동무 신기한 동무
멋진 기능 모두다 뽐을 내거라

참말 멋진 창안들

저것 봐요 박사엄마 우리 엄마
컴퓨터단추를 착착 누르니
벽에 걸린 텔레비죤화면안에서
가상교실 소학생들 곱게 앉아있어요

우리 엄마 마이크로 출석 부르니
별눈 반짝 학생들 일어서며
차례차례 옛! 옛! 대답소리 쉹쉹
가상교실 소학생들 진짜 학생같아요

우리 학급 칙칙박사 복남이도
장난꾸러기 철이도 저기 있어요
공부시간 5점뿔 방실 피우고

생글생글 곱게 웃는 옥이도 보여요

참말 멋진 창안품 보아주신 원수님
가상교실 수업실습 멋이 있다고
세계와 경쟁하며 앞서달리는
새 교수방법이 제일이래요



어머니교실

대학안에 어머니들 교실도 있나
누구나 고개갸웃 물어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
어머니들 복습예습 가르쳐주라

학교와 집사이를 다리놓으며
텔레비죤통신 이은 어머니교실

손가락 저가락 바느질모두
생동한 교편물로 리용되고요

알고싶은 수학문제 외국어단어
어머니들 모두모두 배우는 교실

어머니들한테도 5점뿔 방실
날마다 피워주는 참 좋은 교실

끝없이요 우리 얼마 이야기

박사엄마 이야기 우리 엄마 이야기
해종일 해도해도 끝이 없대요



든든한 뿌리우에 알찬 열매 맺듯이
12년제의무교육 받들 마음 불탄대요

원수님 오신 날에 내주신 숙제공부
5점만점 해야 할 일 앞에 있대요

세계를 딛고올라 사회주의강국 빛낼
최첨단봉우리도 눈앞에 보인대요

원수님 다시 뵈을 영광의 날 기다리며
더 큰 기쁨 안겨드릴 이야기 끝없대요